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4월 28일(주일) 제1243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 사랑 챔버 오케스트라.

오늘은 장애인주일 ... 인식개선 캠페인, 특순 등 기념행사 서빙고, 양재, 부천, 강동 장애인 부서 교사 및 봉사자 모집

오늘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캠페인과 장애인주일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장애인사역본부(담당 박철웅 목사)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심, 이해, 배려, 친절'이 그 주제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함으

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다. '장애우'란 말 대신 '장애인'이라는 바른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화장실 등을 장애인들만 사용하도록 배려하기, 발달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단어로 짧게 말하기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에티켓 등을 홍보하고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관련기사 4-5면).

장애인주일 기념행사도 교회 곳곳에서 이어진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준비한 주일예배 특순이 풍성하다. 서빙고 1부 사랑챔버, 2부 온사랑합창단, 3부 사랑부 OMW(사랑부 부모, 자녀, 교사들로 구성된 울동팀), 4부 서빙고 사랑부 교사콰이어가 특순을 한다.

장애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재능을 뽑내는 자리도 마련된다. 모자이크

플러스(발달장애청년들을 위한 사랑부 주중 프로그램)에서 만든 도예작품(접시, 반침대, 화분 등)과 그림엽서 등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전시 및 판매한다. 예순(지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디자인 직업훈련 보호작업장) 작가들의 그림 전시회도 내일(29일)까지 서빙고 커피숍과 사이닝글로리에서 열린다.

양재는 2부 예배에서 사랑부 교사와 학생들이 울동찬양을 하고, 3부 예배에서 사랑챔버, 4부 예배에서 교사 합창 특순을 한다. 부천 사랑부는 2부 부모, 3부 학생, 교사 및 부모 울동찬양, 4부 교사 수화합창 특순을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포스터와 사랑부 학생들의 기도제목도 게시한다. 사랑부 바리새타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판매하는 자선장도 열린다. 강동 사랑부는 1부 사랑부중창단, 2부 사랑부 교사, 학생, 부모연합 특순을 한다.

한편 장애인 부서를 섬겨 줄 교사를 모집한다. 서빙고는 본관 1층 로비와 이천만광장에 설치된 부스, 양재는 사랑을 로비 홍보데스크, 부천은 교회로비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동은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3215-326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월 5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서빙고 신관 1층에서는 헌혈 캠페인 실시

5월 5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에서는 중앙대학교 헌혈센터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헌

혈 캠페인이 실시된다. 헌혈 캠페인에 참여할 성도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속적으로 환경 캠페인을 열어 환경과 자연을 아끼고, 이웃을 배려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이 있다.

인천 온누리 창립 13주년

오늘 오전 11시 25분 창립감사예배

오늘(28일)은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이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 감사예배를 오늘 오전 11시 25분(2부 예배) 컨벤시아 2층 볼룸A, B홀에서 드린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국내 여덟 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

구 송도동 컨벤시아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송도 컨벤시아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새 예배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문의: 032-437-9686





책 읽어주는 목사

결국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미친 듯이 바쁜〉

케빈 드영 저 | 부흥과개혁사
| 8,000원

언젠가 사랑하는 대학청년부 동료교역자들과 함께 인터넷도,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바쁘다가 갑자기 한가해지고, 그토록의 존했던 문명의 산물까지 내 손에 없으니 무

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허둥대고,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를 보냈다. 한가함을 누릴 내공(?)이 나에게에는 없었다.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온 한가함을 누리지 못했다. 쉼의 시간 내내 한가함을 누린 대가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의 무게를 따지고 있었다.

나쁜 아니라 내가 섬기는 청년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바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오지만, 사람들은 바쁘지 않은 삶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바쁨을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바쁘지 않은 것은 패배한 것이며, 메인이 아닌 잉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가함을 경계한다. ‘피곤해보여’라는 말이 싫지 않다.

헨리 나우웬은 “인생이 파괴적인 이유는 영혼의 골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사역 전후로 제자들마저 물리시고 고집스럽게 외딴 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의 영혼의 골방이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골방이 확보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

은 고집스럽게 영혼의 골방으로 나아가셨다.

바쁘다는 말이 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바쁘면 내 삶이 성취된 것인가? 바쁘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쁘지만 결국 내 삶의 성취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한다.

케빈 드영은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재미있고,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쁜 삶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쁨 속에 숨어 있는 위험을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한다.

첫째, 바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 나는 지금 영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기쁨을 잃고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바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등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바쁨은 걱정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압박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걱정으로 이동하게 한다. 바쁨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소진이 있다.

셋째, 바쁨은 우리 ‘영혼의 부패’를 감춘다. 지나치게 빠른 삶의 속도는 우리의 몸

과 영혼을 병들게 한다. 삶이 바쁠수록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야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이 무의미해질까봐 생기는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

“결국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곧 당신이 신실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케빈 드영의 지적은 바쁨을 내 인생의 가치 척도로 삼고 살아온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에 파묻혀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라며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역 속에서도 외딴 곳을 찾아가 영혼의 골방을 누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고집해야 한다.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맘껏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스케줄은 과감히 포기하고 한가한 영혼의 골방을 만 들어보기를 바란다.

이길택 목사
(요셉공동체)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일에 학원 가야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답: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세상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삶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학원 때문에 고민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게 한다. 복음의 기쁜 소식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다양한 전술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기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때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노역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들에게 일을 더 고되게 시켜 일반 계속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라”(출 5:9).

더 힘든 노역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다.

지금도 사탄은 이와 유사한 전술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일상의 삶을 더욱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몰아간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낸다. 그 이유들을 바쁜 일상 속에서 찾게 한다. 특히 먹고 사는 생계문제와 결부시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유혹한다. 결국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세상살이와 타협한 무늬만 크리스천인 세속적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미 부모들을 통해 세상살이와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녀들은 아주 쉽게 현실적 상황과 신앙생활을 타협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오늘과 같은 질문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학원이라는 현실이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만 든다.

질문부터 잘못 되었다. 주일은 학원을 가는 날이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학원에 가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자녀들의 공부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크리스천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자녀들의 공부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조금씩 타협해가며 우선순위를 바꾸어 간다.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이라는 큰 그림이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위한 영광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려 한다. 여러 전술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최혁중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부활 생명

요 11:25~2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생명에 감염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지도자, 사상가, 종교 창시자도 말할 수 없었던 위대한 자기선언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선언 앞에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 단어로 소개하셨습니다. 첫째, ‘부활’ 이요, 둘째 ‘생명’ 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에서 그치지 않고 한 단어를 추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부활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을 두 단어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는 ‘조에(ZOE)’, 또 다른 하나는 ‘비오스(BIOS)’ 입니다. 조에는 영적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비오스는 자연적 생명, 자연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생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식물의 생명’ 과 ‘인간의 생명’ 입니다. 동식물의 생명은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 뿐입니다. 움직이지만 언제나 자연 질서에 순응하고 본능에 충실합니다. 땅에 살도록 창조된 생물은 땅에만 삽니다. 물속에 살도록 창조된 동물은 물속에서만 삽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심겨진 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주와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합니다. 때로는 자연 질서를 뛰어넘어 하늘을 날고, 깊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고 빌딩을 짓고 사람들의 도성을 쌓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정신과 양심은 초자연적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지구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도 초자연적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른 자연적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자연적 생명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그림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자연적 생명 안에서 죽음으로 소멸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

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피조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낳는다’ 와 ‘만든다’ 입니다.

낳는다는 것은 같은 종류만 낳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은 집을 만들 뿐이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만들지 못합니다. 같은 종류는 낳는 과정을 통해 존재하게 하고, 그것보다 하위 존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는 알을 낳습니다. 새는 둥지를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의 영어 뜻은 ‘the only begotten God(낳음을 받은 유일하신 분)’ 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수 있기에 스스로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그분, 유일한 독생자인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 자연적 생명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원인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모든 죽음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으로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우리를 징벌하려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피조물의 단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생명은 부활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드러난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연적 생명 가운데 시간이 국한되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고 할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탄생은 우리가 자연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라며 자연적 생명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자연적 생명 안에 임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좋은 전염(Good Infection)’ 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보통 전염이라고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전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전염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연적 생명에 전염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전염을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요일 1:2).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증언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석에 철이 붙으면 철에는 자성이 없지만 자석과 같은 자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전염되면 그 영원한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요일 5:11~12).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자연적 생명 속에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후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칩니다. 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류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 다. 모든 이들이 그 구원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창조된 존재로 자연적 생명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자연적 존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자연적 생명에서 질병이 고침을 받고, 수명이 연장되고, 성격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연적 생명의 상태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좋은 전염’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설명하는 문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일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 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 새 사람’ 이 아니라 ‘바로 그 새 사람’ 이다. 그는 모든 새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이다. 그는 ‘조에’(새로운 생명)를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대가가 큼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피조물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단계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계로부터 영원한 생명에 전염되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요,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13면에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는 ‘장애인 차별’

‘장애인과 관계없다’는 생각부터가 오해이자 편견 장애와 비장애 구분 말고,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어야

장애인이라고 해낼 수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두 다리가 없는 수영선수 김세진 군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연소 2위를 차지했다. 선천성 사지기형 1급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연주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오해하고 제한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한 행동일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한가족처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랑부 지체들.



우가 있거든요.”

옆에 있던 예수사랑부 D 집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카페에서 사랑부 아이들 몇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앞에 계시던 성도님이 갑자기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과하게 다가오는 배려는 오히려 장애인들이나 보호자들이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장애인들도 이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질서와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 타고난 존재,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통로**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51만 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인구 100명 당 5명이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장애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2.3%를 차지한다. 8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장애인의 약 90% 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누구나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는 장애인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부터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자 편견이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말과 행동

박사랑 자매(가명, 33세)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장애인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장애인들과 마주치면 왠지 내게 해코지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장애인과 같이 있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드물 것이다. 실제 상당수 비장애인들이 장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거나 장애인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선과 차별은 장애인인 물론이고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

예수사랑부 A 집사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몹시 불편했던 기

억이 있다.

“카페나 식당에서 장애가 있는 내 아이를 외계인 쳐다보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시선으로 내 아이를 쳐다보면 너무 화가 나요. 큰 상처가 되고요.”

자녀가 사랑챗뽀 단원인 B 성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늘 보호자와 함께 다니지는 않아요. 직장, 학교, 교회에 혼자 갈 때도 많아요. 한번은 우리 아이가 버스정류장에서 있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버스를 세우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말(言)에서도 드러난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표현이 ‘장애우’다.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우(友)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 인간으로 인식하게 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거세다. 따라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좋다.

또한 장애인의 반대 개념으로 ‘정상인’ 혹은 ‘일반인’을 사용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표현이다. 정상인이나 일반인의 반대말이 장애인인 아닌 것과 같은 이치다. 굳이 장애인에 대한 반대말을 써야 한다면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옳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장애를 딛고’ 등의 표현도 주의해서 써야 한다. 장애를 극복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장애를 가진 이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좋다.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 않다.

성경에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들이 많다. 특히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성경에 손 마른 자, 절뚝발이, 저는 자, 앓은뱅이, 병신,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눈먼 자, 병어리, 곱사등, 난장이, 간질하는 자, 귀머거리 등 장애인 비하 용어가 많다. 절뚝발이, 앓은뱅이 등은 지체장애인, 중풍병자는 뇌병변 장애인, 간질하는 자는 뇌전증 장애인, 장님, 소경은 시각장애인,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 병어리는 언어장애인, 곱추, 난장이는 지체장애인, 문둥병자, 나병환자는 한센인으로 바뀌 부르고 써야 한다.

가장 큰 차별은 동점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뜻과 상관없이 도와주는 일을 삼가야 한다. 사랑챗뽀 C 성도는 과잉 친절을 경계했다.

“우리 아이가 교회 카페나 식당에서 ‘빵 하나 사 달라, 저거 먹고 싶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사주세요. 그런데 그 행동이 아이한테는 좋지 않아요.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고,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는 사회화 교육이 사람들의 과잉 친절로 인해 도루묵이 되는 경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중에도 장애인이 많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압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되어 지체장애인이 되었다(창 32:31).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사람 3천 명을 죽인 삼손은 시각장애인이었다(삿 16:21).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사도 바울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후 12:7). 예수님 또한 장애인이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위해 영광의 부활체를 포기하고 영원한 장애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요 20:27).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선입견을 단호하게 배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3).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난 존재이고,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나부터, 우리부터, 교회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살기 편한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편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사랑부(지체, 발달장애인) 예배공동체
봉사, 섬김 문의: 02-3215-3268

기고

장애인, ‘이해’ 에서 ‘동행’ 으로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얼마 전 장애인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성리학의 대가 퇴계 이황의 두 번째 부인이 발달장애인이었다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퇴계는 두 번 장가를 갔는데 첫 번째 부인 김해 허씨가 아들 둘

을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일찍 죽었다. 그는 31살에 둘째 부인인 안동 권씨와 재혼했는데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말로는 당시 안동으로 귀양 온 권질이 퇴계를 찾아와 과년한 딸이 정신이 혼미해 출가하지 못했다면서 맡아줄 것을 부탁하자 퇴계가 거리낌 없이 승낙했다고 한다. 하루는 부인 권씨가 흰 두루마기를 다림질하다 조금 태워버렸는데 하필 붉은 천을 대고 태운 곳을 기웠다. 그럼에도 퇴계는 아무렇지 않게 그 옷을 입고 외출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망스럽다고 탓하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붉은 색은 잡귀를 쫓고 복을 부르는 색이라는데 우리 부인이 좋은 일이 생기라고 해준 것인데 어찌 이상하단 말인가.”

퇴계는 권씨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며 살았다고 한다. 후에 권씨가 세상을 떠나자 퇴계는 전처소생인 두 아들에게 친어머니와 같이 시묘살이(부모의 상중에 3년 동안 무덤 옆에서 움막을 짓고 사는 일)를 시켰고, 자신도 권씨의 묘소 건너편 바위 곁에 양진암을 짓고 1년 넘게 머무르면서 아내의 넋을 위로해주었다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퇴계 선생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독질’, ‘폐질’, ‘잔질’처럼 일종의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장애를 단순히 몸이 아픈 개인적 차원으로 봤지 오늘날처럼 쓸모없고 격리되어야 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장애가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정1품 관직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처럼 장애인 보호법이나 장애인 인권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덜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에 대한 편견

세계보건기구(WTO)는 “장애란 개개인의 신체 특성과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신체의 ‘기능상 결함’이나 ‘물리적 행동에 제약을 받는 개인의 특성’을 장애로 규정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가 속한 사회의 특성도 장애의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물이해를 가져오고,
물이해는 편견을 낳고, 편견이 차별로 이어져
장애인을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관심 갖는 것이다.
장애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 매우 낮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는 개인에게만 원인을 돌릴 수 없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느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보다 사회적 차원에 인한 것이 훨씬 심각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고, 편견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세상으로 분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에서 몇 가지만 바로잡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 첫 번째 편견은 장애인과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청각장애인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청각장애인과도 대화할 수 있다. 농아인(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글로 적거나 수화통역사의 도움으로, 난청인들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입모양을 보고 상대방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도 있다. 또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시각을 잃은 쪽보다 시력이 많이 떨어진 저시력 장애인이 훨씬 많다. 점자블록이 노란색인 이유도 저시력 장애인이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

인의 경우도 동일하다. 물론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달장애인 중에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청년이 있다. 물론 비장애인과 대화하는 것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불편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장애인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편견은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발달장애인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발달장애인을 격리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스컴이나 영화의 잘못된 영향이거나 분노조절장애나 망상정신이상 등의 이미지가 발달장애인에게 잘못 쓰인 결과이지 사실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2000년도 범죄백서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범죄 발생률이 2.5%인 반면 발달장애인은 1.8%로 오히려 비장애인들이 훨씬 위험한 존재라고 밝히고 있다.

세 번째 편견은 대부분의 장애가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선천적 장애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에서 선천적 장애는 5% 미만이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89%나 된다.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는 질환에 의한 장애 52%, 사고로 인한 장애 36%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의 경우에도 몇몇 증상들(다운증후군, 프래더-윌리증후군, X증후군 등)만이 염색체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을 뿐 대부분의 발달

장애는 약물오남용, 공해, 출산전후 산소부족 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당사자나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네 번째 편견은 의학과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장애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1953년 소아마비 백신을 발견하자 한때 사람들은 의학이 장애를 퇴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비록 소아마비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이 생겼다. 산업사회의 발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었지만 생존할 수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기술발전으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의족을 착용해 비장애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고, 청각장애인이 인공와우수술을 통해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장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장애인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편견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초·중·고등학교 약 3천명에게 장애인을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었더니 약 80%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표현보다 ‘장애우’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도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는 않는다. 주체의식이 강한 장애인일수록 동정 시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매우 자존심 상해한다. 장애우란 표현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장애우, 즉 장애인의 친구 000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기 때문이다. 또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친구로 소개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말이 무관심이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무관심이야말로 사랑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물이해를 가져오고, 물이해는 편견을 낳는다. 편견은 차별로 이어져 결국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장애를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라는 말보다 ‘차이’라는 말에 더 공감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청년들

부천 대학청년부의 함께하는 '성경통독모임'

“함께 하면 쉽고,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드림플러스 성경통독모임 리더십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실제 혼자 하기 어려운 성경통독이 함께 하면 쉽고 재미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부천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절반에 가까운 100여 명이 성경통독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7명으로 시작한 모임이 3년 사이 이렇게나 커졌다. 그 무엇이 청년들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삶이 변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음식과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부천 대학청년부 성경통독모임 리더십들.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년은 아무도 없다. 실제 수많은 청년들이 성경통독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통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성경통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성경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먹고 마셨더니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천 대학청년부 성경통독모임은 한 자매의 결단이 모태가 됐다. 김선영 자매(드림플러스공동체)가 한 사역단체에서 실시하는 ‘말씀배가운동’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소그룹을 만들어 성경통독을 하고 또 다른 성경통독 소그룹을 만드는 운동)에 참여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동역자들을 모았다.

“말씀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사회,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 맞는 지체 7명과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모임이 진행될수록 너무 좋았어요. 하루도 빠질 수가 없었죠. ‘말씀부흥’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갔어요. ‘말씀을 알면 살어나고 모르면 죽는다’는 생각도 하게 됐죠.”

소수로 시작한 성경통독모임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말씀 읽고 나누는 데 흠뻑 빠진 청년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매주 모여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눴다. 온라인 모임도 적

극 활용하고 있다. SNS 단체 채팅방에 말씀묵상 내용과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자 ‘가이드’

7명으로 시작한 말씀통독모임이 100명이 넘게 참여하는 큰 모임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이 주는 은혜이다.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었다. 김채원 자매(드림플러스공동체)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성경통독모임을 하면서 성경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알게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놀라운 계획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찾은 말씀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잃어버린 방향성을 잡아주기도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호영 형제(드림플러스공동체)는 성경통독모임이 삶의 나침반이라고 고백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성경을 두세 번 읽다보니 그 묵상의 깊이가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예요.”

이수미 자매(드림플러스공동체)에게는 성경만큼 좋은 인생의 가이드가 없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책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성경 인물 중에서는 누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를 생각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역사서 정도로만 여길 때는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살아갈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문장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박명지 자매(드림플러스공동체)는 성경통독모임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하나 더 만들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성경통독을 하면서 공동체 수련회와 취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상이 바빠졌지만 말씀을 매일 읽다 보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A형제는 성경통독모임에 참여하면서 일상을 괴롭히던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났다. 미디어 중독에 빠져 사람들 만나기도 버거웠던 A형제를 위해 성경통독모임 멤버들이 매일 성경말씀을 녹음해서 보내줬다. A형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미디어 중독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독에서 벗어났다. 자존감도 회복했다. 더 이상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졌다.

성경을 읽으며 재정의 문제에서 벗어난 청년도 있다. 김준영 형제(드림플러스공동체)는 성경을 읽으며 재정의 원칙을 배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재정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적 재정의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재물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의 문을 열어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하시고, 공장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은혜를 맛보게 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꾸준히 성경퀴즈대회, 성경낭독데이, 성경일독 시상 등의 이벤트를 열어 성경통독을 홍보하고 독려하고 있다. ‘한 줄 묵상’도 한다. 한 줄 묵상은 스스로 정한 하루 분량의 말씀을 읽고 와 닿은 구절이나 느낀 점을 한 줄로 적어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청년들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통독에 성공하고 있다. 성경일독 완주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간다. 이종하 팀장(드림플러스공동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성경통독을 완주했다고 찾아오는 지체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생활을 오래 했어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경일독을 성경통독모임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성경통독모임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읽는 근육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청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 대학청년부 대표장로인 이경호 장로는 청년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만 봐도 큰 은혜가 된다고 했다.

“청년들이 찬양대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다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영적인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일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년들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성경통독모임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부천 대학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조병홍 목사는 말씀통독모임이 이 시대 청년들을 잡아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성경통독모임이 말씀 없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스스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가 이 시대 청년들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팠던 내 아들 같아서...”

재소자들에게 유일한 소망 선물하는 ‘신정화 집사’

“암도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내시고, 저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제 평생 가장 훌륭한 멘토입니다.”
새사람사역팀 신정화 집사(양천공동체)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한 재소자(소망교도소)의 고백이다. 일대일 양육자에게 이보다 기쁜 고백이 없을 것이다. 분노와 절망, 좌절에 사로잡힌 재소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면서 예수라는 한줄기 빛을 선물하고 있는 신정화 집사를 만났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재소자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에너지가 굉장한 사람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신정화 집사의 첫인상은 참으로 수수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잔머리 하나 빠져나오지 않게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차림새가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제 평생 가장 훌륭한 멘토’라는 찬사를 받은 것에 대한 소감을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재소자들을 보면서 방향하던 제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나 우리 아들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들 같은 재소자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극성 열혈엄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지금은 웃차림도, 말투도 수수하기 그지없지만 신 집사는 한때 치맛바람 꽤 날리던 목동의 열혈엄마였다.

“아이 교육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극성이었어요. 아들이 제 우상이었거든요. 바로 그 아들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신 집사는 아들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로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극성엄마였다. 신 집사의 바람대로 그녀의 아들은 늘 1등만 도맡아 했고, 착실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 공부 잘하는 아들에게 과외며 학원이며 좋다는 것은 다 시켰다. 결국 신 집사의 바람대로 그녀의 아들은 명문대학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련이 찾아왔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부터 방향을 했어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접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순전히 제 욕심으로 대학을 보낸 게 화났어요.”

신 집사의 남편은 방향하는 아들을 보다 못해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군의관이 아니라 일반 병사로 입대를 시켰다.

“아들이 군대 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총기사고가 일어났어요. 우울증을 앓던 병사



신정화 집사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며 청년 재소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다.

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끔찍한 사고가 우리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까지 신 집사에게 교회는 사교모임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 성경을 읽어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방향하는 아들을 보면서 달라졌다. “공부 잘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살려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아들이 저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제 마음에 있던 아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제2의 인생을 꿈꾸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신정화 집사는 예수전도단 DTS훈련을 받았다. 그곳에서 알게 된 권사님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왔다.

“그때가 2007년 1월이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특별새벽기도회(현재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제 생각이 나

더라고. 그 권사님 따라서 저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온누리교회에 다녔어요.”

신정화 집사의 아들은 군대 제대 이후 은둔자가 되어버렸다. 학교에서는 제적을 당했다. 게임중독에 빠졌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몇 년을 방에만 틀어박힌 채 컴퓨터 게임만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신 집사의 마음에는 아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다.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말씀도 외우고, 전도하면서 제 영혼이 더욱 강건해졌거든요. 그 덕분에 아들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솔직히 저라고 은둔생활을 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게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방향하는 아들을 언젠가는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신 집사가 사는 동네에도 그 집 아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은둔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아들 교육에 목숨 걸고, 다른 엄마들 보란 듯이 꾸미고 다녔던 예전의 신 집사라면 몹시 창피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괜찮았다. 말씀이 주는 위로가 그만큼 컸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 베드로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수군댔을 때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걱정이 들고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휘둘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과 확신을 의지

하려고요.”

신 집사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쳤다. 5년 전 자궁내막암에 걸린 것이다. 다행히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잘 받고, 식이요법에도 신경을 써서 병에 걸리기 전보다 건강해졌다.

“전도하기 위해 항상 친절하고, 활짝 웃었거든요.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째 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집에 우환이 많은데 엄마는 왜 웃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웃고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전도폭발훈련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전도에 폭 빠져 있는 그녀에게 요즘 새로운 사명이 생겼다. 바로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재소자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나 우리 아들이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 같은 재소자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오. 하나님도 그들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신 집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재소자들의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저와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것처럼 재소자들에게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요. 재소자들이 유일한 소망인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제2의 인생을 꿈꾸도록 돕고 싶어요. 결국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니깐요.”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사역: 예배 찬양 인도, 악기 연주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문의: 구자엽 팀장 010-4286-0078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임재가 있는 가정예배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559장)	다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마태복음 4:23~25	다같이
설교	‘임재가 있는 가정예배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어린이:565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임재가 있는 가정예배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기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는 그 지역만의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는 다소 고립되고, 때로는 가난과 억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이는 그런 갈릴리를 가리켜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중략)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사 9:1)라고 선포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모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 사역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 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함으로 행복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영적인 가르침이 왕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영접

한 영혼을 양육시키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내면을 채워갑니다. 천국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일찍이 역사와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상처와 절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천국복음은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 중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입가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복음으로 우리 가족구성원의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정체성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천국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천국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주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 온유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영향력으로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평안이 깃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세대별로 이겨내야 할 다양한 긴장과 갈등, 두려움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평안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가정은 평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

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병 고치는 능력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치유는 곧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도와주는 형태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서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자녀들로 자라게 됩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교훈하시고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 하셨습니다. 가정예배는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이 가득한 갈릴리 역사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가정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스위트홈(Sweet Home)’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능합니다. 온 땅에 봄기운이 가득한 5월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김영배 목사
(강남B공동체)

가정예배 상담소

백은실 사모가 알려주는 가정예배 팁!



백은실 사모
(호산나교회)

가족구성원이 가정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가정예배에 자녀나 남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 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가정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정예배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안내해주면서 자녀 혹은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도 계속된 기도를 통해 소파에만 앉

아 있던 남편이 가정예배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예배 참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가정예배 참석을 강요하면 신앙에 안 좋은 경험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 안 좋은 경험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는 무조건적인 인정과 존중을 해주고,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늘 제 자신과 싸웁니다. 그래도 자녀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관계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올

자녀와 관계회복이 우선

바르게 알고, 자녀들에게 교육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뭘 배워왔으며 가정예배를 시작하자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성경적 가정과 가정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말씀 심는 엄마>와 <메튜 헨리의 가정예배를 회복하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가정과 가정예배의 실제적 방법을 잘 담아낸 책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가정은 돌아가면서 예배인도자가 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세 살 때부터 예배를 인도 했습니다. 막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인

도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예배를 마무리 했습니다. 기타에 재미를 붙인 첫째는 요즘 찬양인도를 30분씩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자녀들이 동생들 수준에 맞춰서 찬양을 고르고 말씀도 나눕니다.

자녀들이 예배인도를 하며 너무 신날 때는 절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너무 흥분하면 잠시 멈추게 했다가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예배가 끝나고 대답해주겠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족만의 약속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Q&A편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문의: 02-796-9800, www.cgntv.net

전문가 기고

삶의 위기에 관한 질문과 대답

결국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

오은규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기독교 신앙에서 ‘고통’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이다. 성경 읊기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읊기의 주제는 독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읊기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 굳이 교훈을 준다면 단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통의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원한 답변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학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을 ‘신정론(神正論)’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실제 신앙인들의 삶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의인들의 고난과 고통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까?”

신정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조직신학자들은 고난과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헤아려 보려 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난과 고통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째, 고난과 고통은 인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셋째,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성장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자연계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날 뿐이다. 다섯째, 하나님도 고통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계신다. 이와 같은 답변들은 한편으로는 이해할만 하지만, 고통을 겪는 당사자나 가족들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뿐이다.

필자가 잘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있다. 그 분은 젊은 시절 관제사로 일했는데 그가 관제했던 항공기가 기상악화로 추락해서 승객 6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기상악화로 인해 착륙절차를 따르지 않은 항공기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추락사고의 외상(Trauma)과 회항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자



“고통의 사건도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고통의 사건은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책감이 그의 인생에 의문과 두려움, 절망을 안겨 주었다. 후일 그는 그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었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겪은 사건의 외상과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적인 해석 역시 우리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다.

최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접근 방법이 생겨났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목회상담학자들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발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여전히 찜찜할 뿐이다. 인간의 마음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줄 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간다.

읍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읊은 하나님으로부터 왜 고난당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읊은 하나님과 대면한다. 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앞드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어루만져 더 이상 질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필자의 대학생 시절, 목회자였던 젊은 아버지를 질병으로 잃게 되었다. 필자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죽음의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 신학공부를 했다. 필자가 다녔던 대학에는 체계적인 조직신학자들이 종종 방문해서 죽음

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때마다 열심히 참석해서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그 강연들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시원하게 밝혀주지 못했다. 아버지를 상실한 내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전혀 달래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무렵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때 상담학 공부를 시작해서 내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나의 상한 감정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외상 후 성장 이론

상실과 고통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근래 긍정심리학으로부터 태동된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이론은 외상(trauma) 경험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외상에 관한 종래의 심리학과 의학적 접근 모델은 주로 부정성에 초점을 맞춰 부정성 제거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예를 들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의 외상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간주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자 노력해왔다.

반면 Joseph(2004년)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외상 및 역경 후 스트레스 개념을 인지처리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정상적인 적응적 반응으로 이해하였다. 상실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반응과 외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고난

과 고통에 대한 반응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적응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외상 후 성장 이론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피조물로 바라보고자 하는 기독교적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합력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외상 후 성장 이론에 따르면 고통의 사건 앞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동화(Assimilation) 방식이다. 기존에 대처했던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이내 똑같은 위기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대처방식이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동화 방식을 사용해서 반복된 어려움을 겪는다.

두 번째 유형은 순응(Accommodation) 방식이다. 순응적인 적응은 삶의 위기 앞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유한성과 부족함을 깨닫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긍정적 순응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적응을 시도하면 세 번째 유형인 부정적 순응이 된다.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와 고통을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대처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외상적 경험은 오히려 변화된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외상 이후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에 대해 Calhoun과 Tedeschi(1995년)는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설명했다. 첫째, 개인의 변화이다.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강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나 자신을 벗어나 타인 중심의 삶을 살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생철학의 변화이다.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 이들이 일반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행복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선교사님의 삶도 어찌 보면 외상 후 성장의 삶이 아닐까? 외상 후 성장 이론의 중요한 발견이자 통찰은 고통의 사건도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삶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고통의 사건은 오히려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데 가장 좋은 촉매제라는 사실이다.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외상적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외상 후 성장 이론은 신앙인들이 고민해왔던 고통의 질문에 대한 또 한 가지 심리학적 답변을 제공한다.

꼭 한번 봐야 할 공연 뮤지컬 ‘루카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루카스입니다”



영화와 같은 함성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배우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감동에 찬 배우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관객들도 따라 울었다. 화려한 퍼포먼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유쾌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는 관객들

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1년 만에 관객들을 다시 찾아 온 뮤지컬 ‘루카스’를 직접 본 후기다.

15분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난 루카스

뮤지컬 루카스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한 주인공 ‘현우’가 친구의 추천으로 캐나다의 한 휴양지를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친구 말만 믿고 찾아가는 곳은 휴양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체 ‘데이브레이크’다. 친구에게 속은 현우는 분노했고 당장 그곳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던 현우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된다. 그러던 중에 발달장애인 부부 앤디와 줄리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된다. 일곱 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파 앤디와 엄마 줄리가 9개월 동안 기다려온 아기의 이름이 바로 ‘루카스’다.

불행하게도 루카스는 뇌기형을 가지고 있어 태어나자마자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 병원에서는 탯줄을 끊자마자 15분 안에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 루카스는 부모와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게 큰 사랑을 받으며 17일 동안 생명을 이어간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다. 차갑게 얼어 붙어있던 현우의 마음도 조금씩 녹기 시작한다.

뮤지컬 루카스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생명의 소중함, 자연을 배경으로 한 화사한 세트, 감각적인 영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박자가 한데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품 중의 명품 뮤지컬이라고 소개해도 손색이 없다.

배우들의 열연도 빼놓을 수 없다. 공연 내내 관객들을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인도한다. 특히 현우를 연기한 배우 이영희는 특유의 까칠하고 매서운 연기로 극의 몰입감을 한층 더 고조시킨다. 순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앤디’ 역을 열연한 배우 김재광의 톡톡 튀는 감각적인 연기도 훌륭하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루카스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곧 죽게 될 아기의

탄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발달장애인 아버지의 모습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15분밖에 살지 못하던 루카스가 17일을 사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뮤지컬 루카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에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루카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좋은 비타민이 없다.

뮤지컬 루카스는 오는 6월 1일까지 평일(수요일 제외) 저녁 7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제외) 오후 1시, 오후 5시 대학로 작은극장 광야(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100 첫대박물관 지하1층)에서 막 오른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티켓 가격은 4월 2만 원, 5월 평일 2만 5천 원, 주말 3만 원, 6월 3만 원이다.

문의: 02-741-9182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두란노 신간

성경적 성교육 지침서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이진아 저 | 두란노 | 12,000원

Part2는 교회와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법, Part3는 영어권 성도들을 위한 영어 성교육법을 안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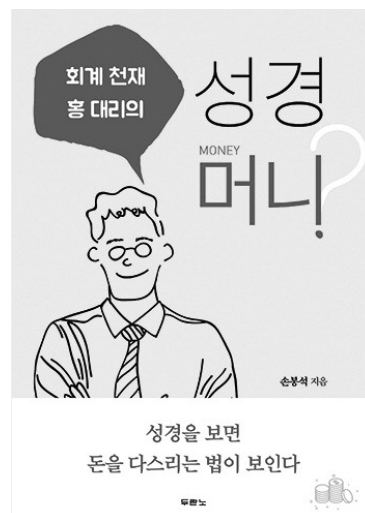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은 잘못된 성 정보에 무차별로 노출된 청소년들과 적절한 성교육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아주 훌륭한 성경적 성교육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요즘 수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 SNS, 영화 등의 미디어에서 성(性)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있다. 많은 교회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줄 적절한 성교육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진아 전 도사가 교회와 부모들을 위한 성경적 성교육 지침서를 펴냈다. 바로 〈십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이다.

저자인 이진아는 “청소년들에게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임신과 출산의 과정, 남녀의 신체적 구조와 성적 징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결혼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을 성경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알아보고 대화함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1은 이 시대의 성에 대한 가치관과 성경적 성교육,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저축하기



〈성경머니〉
손봉석 저 | 두란노 | 13,000원

쉽게 설명되어 있다. 또 각 장마다 ‘money tip’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가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각 세대별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재정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실재적인 코너이다. 이 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하고, 현명한 소비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와 어려움에 자주 직면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저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성경머니〉의 저자 손봉석 회계사는 우리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저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성경적인 경제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경제관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관을 배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확인함으로써 돈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성경머니〉에는 돈의 원리, 투자의 원리, 소비의 원리, 부채의 원리, 돈 버는 원리가 알기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목사”

길혜영 목사(서빙고 차세대)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 12:3). 전도사로 부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안수를 받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부르심과 복음을 향한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순복하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이준인 목사”

이준인 목사(여호수아공동체)

‘그리스도의 노예’. <케으름>의 저자 김남준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쓰셨던 말입니다. 이번 목사안수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 겸손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랑하는 아들이야. 종에게는 ‘님’ 자를 붙이지 않고 ‘놈’ 자를 붙이니 더욱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의 흔적을 가진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목사’라는 타이틀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가 가진 예수의 흔적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노예 이준인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전하는 목사”

임경헌 목사(양재 차세대)

안수 받을 때 느꼈던 성령님의 임재, 세족식 때 받았던 예수님의 손길,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써주신 ‘부르심’이라는 시처럼 살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함에 감사합니다. 부디 큰 자 되십시오. 섬김과 사랑에서 권세와 자랑에서는 눈먼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오래 간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더 많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급한 기쁨보다는 느타라도 평강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이가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

윤현규 목사(갈렙공동체)

지난 4월 23일 평양 남노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고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7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켜보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올수 없었던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최선을 다해 하나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목사”

김진아 목사(서빙고 차세대)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청소년 시절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 둘째 전도사가 되는 것, 셋째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행하고 인격적인 그분을 신뢰하며 걸으려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선배 목사님들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

백인규 목사(Point5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 남노회 소속으로 2019년 4월 23일 남양주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Point5공동체 리더십들의 격려와 따뜻한 가족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몸 된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4월 세례자

■서빙고	김세윤 180430	■양재	박수빈 180906	■J4U	입교	■하늘
김윤정 690507	김진규 유혜식	권민선 681228	박현석 표혜민	박정원 940721	김 솔 910901	권효준 980826
남정아 761211	김은율 171028	김기훈 740929	송이레 171026	입교	유아	입교
방영우 730124	김재환 전진영	문성오 810721	송영복 김정하	김성민 900413	이정현 180501	오하연 930605
손지윤 870330	김지을 170513	오상훈 750323	윤이로 170512		이원재 김수진	임정연 961005
음소라 890506	김민석 김민선	유아	윤희원 이주연	■Pole2		
조수현 760116	박주하 170404	김지우 180104	전윤슬 170219	입교	■여호수아	■허브
입교	박대원 임채림	김현수 김숙진	전희준 김지영	전동준 971127	구현모 810112	윤지은 950124
이정우 880704	이은우 180918	김지호 180117	조이엘 170524	홍기영 010109	김태준 801005	입교
유아	이규진 김소연	김인식 김현주	조신걸 문지혜	■SNS	안지유 800531	김승현 951116
구현우 170809	홍하영 170621	김하은 170627	추은우 180408	소 라 860926	장동원 881225	신민욱 970416
구범용 김보애	홍승순 남윤지	김 명 이윤희	추정훈 한소라	입교	홍바울 840526	임민영 970719
김린아 170515		박서연 171128		이민하 840616	송아란 910323	
김정훈 이주연		박민우 송 이	<대청>	이수남 950701		

더멋진세상, 카이스트와 업무협약

배상민 교수와 적정기술과 디자인 동역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3일(화) 카이스트(KAIST)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NGO 더멋진세상은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산업디자인학과)와 동역해 나갈 예정이다. 배상민 교수는 동양인 최초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이자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한 저명한 디자이너다. NGO 더멋진세상 CEO 김광동 장로는 “앞으로 배상민 교수와 함께 적정기술과 디자인으로 지구촌 이웃들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키비(KIBI) 설립감사예배

5월 4일 오전 10시 서빙고 한동홀

‘사단법인 키비(KIBI) 설립감사예배’를 오는 5월 4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드린다. 사단법인 키비는 지난 3월 21일 서울신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한 권혁승 명예교수를 이사장, 이재훈 담임목사를 이사로 세우고 설립됐다. 사단법인 키비 설립감사예배 준비위원회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단법인 키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4월 29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에 울려 퍼지도록
- 4월 30일(화) 시즈오카가 일본을 축복하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 5월 1일(수) 시즈오카 교회들이 연합하고 참된 부흥을 누리도록
- 5월 2일(목) 전도대상자들이 러브소나타에 참석해 구원받도록
- 5월 3일(금) 한국인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도록
- 5월 4일(토) 이재훈 목사님과 출연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 5월 5일(주일) 세미나를 통해 시즈오카에 신실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029	이진숙	SNS	1135058	한지연	부천 믿음	1135092	신영경	강서	1135128	구동환	허브
1135030	김우창	SNS	1135059	박성호	서대문	1135093	고재천	경기A	1135129	김소형	허브
1135031	류신찬	SNS	1135060	음소라	마포	1135094	이유림	허브	1135130	이주연	허브
1135032	이은지	SNS	1135061	조명숙	인천 소망	1135095	조장래	Point5	1135131	이영인	허브
1135033	장민지	SNS	1135062	임광동	분당A	1135105	연재은	J4U	1135132	김하열음	허브
1135034	조민진	SNS	1135063	채정란	인천 소망	1135106	신현지	J4U	1135133	신여호수아	SNS
1135035	이은구	대전 동누리	1135064	민향숙	인천 소망	1135107	성진기	J4U	1135134	류상욱	SNS
1135036	김종선	부천 믿음	1135065	정해국	인천 소망	1135108	김달해	J4U	1135135	김현지	SNS
1135039	배준형	인천Web	1135066	김민선	관악금천	1135109	김자영	J4U	1135136	국해리	SNS
1135040	한성민	인천Web	1135067	이흥도	부천 화평	1135110	김소현	Point5	1135137	김성욱	SNS
1135041	김희자	부천 화평	1135076	정성림	서빙고	1135111	함유정	하나	1135138	황은혜	SNS
1135042	정연숙	부천 화평	1135077	박한기	인천 소망	1135113	이상욱	인천Web	1135139	김희영	SNS
1135043	김민철	인천Web	1135078	정근원	갈렙	1135114	김민지	인천Web	1135140	김희수	SNS
1135045	김한주	고양은평	1135079	한주은	여호수아	1135115	김예지	인천Web	1135141	조지민	SNS
1135046	정주영	무궁동체	1135080	최요한	여호수아	1135116	이예린	양지 YJ	1135142	이영권	SNS
1135047	조진경	갈렙	1135081	최화니	여호수아	1135117	김의경	인천Web	1135143	최예나	SNS
1135048	김 솔	SNS	1135082	문경보	여호수아	1135118	신기해	양지 YJ	1135144	김하니	SNS
1135049	양호승	서초D	1135083	김호주	여호수아	1135119	윤상윤	양지 YJ	1135145	박하나	SNS
1135050	문소리	강남D	1135084	유재호	여호수아	1135120	김택진	산울산	1135146	정해욱	서초C
1135051	강윤호	양지 동누리	1135085	김이경	여호수아	1135121	김정옥	강동 믿음	1135147	윤주필	인천 소망
1135052	류지현	Bridge33+	1135086	변해인	여호수아	1135122	전근영	양재	1135148	황상준	성동광진
1135053	박수빈	인천 소망	1135087	이고은	여호수아	1135123	이동영	무궁동체	1135149	박주형	서대문
1135054	고찬교	대전 Belief	1135088	오여민	여호수아	1135124	김재린	허브	1135150	송호빈	일본어예배
1135055	이유림	강남B	1135089	최은석	여호수아	1135125	김하별	허브	1135151	SUZUKIM	일본어예배
1135056	김현수	대전 서누리	1135090	조정래	S보릿지	1135126	이관우	허브	EGUMI		
1135057	강소정	여호수아	1135091	김환희	여호수아	1135127	고준형	허브			

신앙에세이

권사칼럼

신앙적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나를 부르신 이유

조병홍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목사님, 내가 왜 비싼 돈을 내고, 그 더운 나라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년 전 여름 아웃리치를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청소년들에게 해외 아웃리치를 권유했을 때 한 아이의 말이었다. 가

기 싫은 핑계가 아니라 솔직한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생활을 할 때 아침이면 만나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다. 때마다 샘물과 메추라기를 경험했다. 이러한 일들이 광야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어주신 놀라운 ‘기적’이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은 2세대의 몫이었다. 만일 2세대가 기적을 일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가나안 정복에서 분명히 패배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전만큼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 사회는 분명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 가운데 있다. 또한 조선의 선교 역사를 볼 때 현재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예배와 사역은 분명 하나님께서 베푸어주신 은혜요, 기적이다. 그런데 어느새 이러한 기적이 평범한 일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광야 1세대처럼 기성세대가 된 우리는 더 큰 영적전쟁을 치루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하고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임을 다시금 깨닫고, 다음세대로 하여금 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

여행 방식 중에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 있다. 전쟁의 현장이나 큰 재난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투어리즘(Black Tourism) 또는 그리프투어리즘(Grief Tourism)이라고도 한다.

부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지난 수련회를 전주와 여수로 다녀왔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이루어진 선교역사 현장을 돌아보는 일종의 ‘신앙적 다크투어리즘’이었다. 여수의 애양원과 전주의 예수병원 및 전라도의 선교지를 탐방했다. 선교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을 글과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그 땅을 밟으며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당연한 일상으로 여겼던 예배와 여러 신앙생활의 껍질이 기적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 기적의 통로가 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를 묵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2세대 청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되새기고 나눴다.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다.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발견하는 신앙적 다크투어리즘을 추천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든든히 세우는 길, 정체되어 있는 신앙을 깨우고 변화하는 길은 오늘도 이 땅에 내리고 있는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일상이 아니라 기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속 1:3).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는 시간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일상을 기적의 신앙으로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김진애 권사
(이수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4시, 나는 새벽이슬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SNS공동체 멘토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청년들을 보살피는 멘토로 부르셨을까?’, ‘과연 내가 멘토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다.

SNS공동체 멘토로 섬긴지 1년 가까이 지난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SNS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기를 원하신 것 같다.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를 그 귀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 부부는 SNS공동체 멘토이고, 작은딸은 SNS공동체 MC다. 예배의 회복과 정착이 가장 절실했던 큰딸은 매주 SNS공동체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있다.

작년 여름 SNS공동체 수련회에서 우리 가족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체험했다. 작은딸은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나는 안 만나 주셔도 괜찮으니 우리 언니를 꼭 만나주세요”라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딸을 수련회에 참석시키셨다. 큰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고백했다. 자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은 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깨달았다.

매주 진주말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단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기도 시간에 나는 온전히 예배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 또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SNS공동체는 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멘토들이 각 그룹을 담당하는데 우리 부부는 리조이스그룹을 담당하게 되었다. 부활 주일 예배 이후 지혜로운 그룹장님 덕분에 리조이스그룹원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청년들과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냈다.

앞으로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들의 꿈과 비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청년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복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혼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 되고 싶다.

장로칼럼

세상을 향한 新프로테스탄트 운동

이경호 장로
(부천 사랑공동체,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4월은 과학의 달이다. 나는 지난 30년을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와 대학에 몸 담아 왔다. 그 시간 동안 과학기술인으로 보람을 느껴며 인생을 열심히 달려온 것 같다. 얼마 전 우연히 초등학교 시절 통지표를 발견하였다. 거기에 쓰인

나의 장래희망은 ‘공학박사’였다. 왜 그때 장래희망을 공학박사라고 썼을까? 그 이유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는 지금 공학박사로, 대학교 교수로, 순수한 과학기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창조를 부인하는가? 아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기술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내 장래 희망 공학박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듯하다.

나는 ‘프로테스탄트(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패러다임을 바꾼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천동설이 지배해 오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해 우주에 대한 관점을 바꾼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등은 불변의 진리로 알고 있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과학자들이다. 이렇듯 패러다임의 변화는 세상을 바꾼다. 진정한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이 시대의 진화론적 패러다임, 타협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 21세기 젊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주역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다음세대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세대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新프로테스탄트 운동이다.

세상에는 운동에너지($E=1/2mv^2$)와 위치에너지($E=mgh$)가 있다. 운동에너지는 움직이는 속도(v)의 제곱에 비례한다. 젊은이들에게는 화려한 움직임이 있고, 활동적인 운동에너지를 좋아한다. 그러나 위치에너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너무나 정적이다. 물체의 높이(h)에 따라 위치에너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위치에너지를 영어로 포텐셜(Potential,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말한다. 물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위치에너지를 좋아한다. 이 시대 청년들과 다음세대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확한 위치에서 있기를 바란다. 정확한 위치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新프로테스탄트 운동은 화려한 운동에너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이 회복되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충격(Holy Impact)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성경의 열 처녀 비유를 생각해 본다. 열 처녀 모두 등불을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다. 등불과 기름에 대해 묵상한 적이 있다. 등불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환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름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新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핵심 가치이다.

나는 가슴이 뛰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과학기술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것 때문이다. 또한 17년차 교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 젊은이들의 新프로테스탄트 운동을 기대해 본다. 젊은이들이 변화시킬 세상과 더 든든히 세워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부활 생명

왜냐하면 그분은 ‘한 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전염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 개개인을 전염시키는 일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 자기다워집니다. 진정한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노력하고, 개선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유전적 요소, 환경적 요소, 성장 배경, 교육, 탐심 등에 얽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생명에서 조금 나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옛사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전염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고, 숨었고, 과거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살 것이다”라고 하시자 그녀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당시 바리

새인들이 믿었던 대로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전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려면 부활하심으로 나타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의 다시 사심과 함께 부활의 생명에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나의 밖에 있는 인격적 존재를 스스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와 예수님과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교황청이 부패하였을 때 교황 레오 10세에게 이런 논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논문에는 믿음의 위대한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의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가진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총만하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죄와 죽음과 멸망으로 총만하다. 이제 신앙을 그들 사이에 끼워보자. 그러면 죄와 죽음과 멸망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이고, 한편 은혜와 생명과 구원

은 영혼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속한 죄와 죽음과 멸망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환되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The Great Exchange)’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생명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에 감염된 이들이 체험한 기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증거 되고 있고, 지금도 온 세상에서 강력한 운동력으로 영원한 생명력이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전염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염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에 전염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긴급기도요청



에드워드 김 선교사
(스리랑카)

부활주일(21일)에 폭탄테러가 발발한 이후 지난 월요일(22일)까지 수사기관의 결과나 테러를 자행한 단체의 생명이 나오지 않았다. 예측하기 조심스러웠지만 자살폭탄이 최소 두 군데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소행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지난 23일 저녁 ‘IS(Islamic State)’는 폭탄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스리랑카는 소승불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강성 불교의 나라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불교 신자들이 적지 않다. 작년 3월에는 싱할라족 불교 신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의 충돌로 무슬림 주민의 집과 상점 450채, 사원 20여 곳이 훼손됐고, 주민 2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불교 신자들은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스리랑카 내부에 있는 극단 이슬람주의 단체 NTJ(National Thowtheeth Jama'ath)가 국제

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와 연합해서 테러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왜 교회와 성당, 주요 호텔을 공격했을까? 무슬림들은 싱할라족이 주류인 불교도들과의 종족싸움을 벌이기에 아직 세력이 약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지하드(이슬람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슬람교도에게 부과된 종교적 의무, 신앙이나 원리를 위하여 투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를 벌이기에 기독교인들과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삼는 것이 최적이었을 것이다.

부활주일에 일어난 이 테러로 오늘(24일)까지 3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어린이가 45명), 500여 명의 부상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38명이 있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가 발표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코치카데의 St. Anthony's Shrine성당은 예배당 지붕을 비롯한 건물이 심하게 부서져서 재건축이 불가피할 것 같다. 바티칼로아의 Zion(시온)교회와 네곰보의 St. Sebastian's 성당도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상그릴라 호텔 3층에 있는 뷔페식당은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식당

이었다. 그곳 역시 완파 되어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킹즈베리 호텔과 시나몬 그랜드 호텔 일부도 훼손되었다.

내 딸의 같은 반 친구 한 명도 이번 테러로 희생을 당했다. 다들 여전히 긴장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신문과 경찰소식통에 의하면 폭탄을 실은 승합차(Van)와 화물차(Lorry)가 여전히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게 됐다. 이들 간의 휴교령이 일주일로 바뀌었고, 은행과 공공기관들도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 4월 24일까지 매일 저녁(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발령되었다.

제일 많은 어린이들이 순교를 당한 바티칼로아의 Zion교회에서부터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는 주장과 동시에 죄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힌두교 이웃이 아침에 찾아와 자신의 누이가 폭탄테러로 죽었다고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어느 목회자의 고백도 들려 왔다.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당했다. 희생당한 가족들, 부상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히 치

료되고 안정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꺾박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26년(1983~2009) 내전 중에도 없었던 동시다발 폭탄테러로 스리랑카에 공포와 증오,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공동체 문화가 강한 스리랑카이기에 종족 간이나 종교 간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예배공동체로서의 모임과 장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당장 돌아오는 주일(4월 28일)에 규모가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테러를 피해 가정교회, 소속 공동체 중심으로 모임을 지향하는 교회가 많아지리라 여겨진다.

이번 부활주일 폭탄테러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모아지기를 바란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욱 힘 있고 자혜롭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수지만 들끓처럼 번져가는 스리랑카의 교회와 공동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윤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요일 하노이 카페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광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광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자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

모집: 서빙고 한식조리, 서빙고 전기, 양재

커피숍, 양재 기관, 양지 비전빌리지

한식조리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02-3215-3102

상세 모집요강은 사람인 해당 공고 참조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1일~27일

장소: 몽골 울란바트로 아가페기독교병원

모집: 소화기, 심장, 신장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간호사, 약사, 일반봉사자

문의: 김익석 팀장(010-3326-8058)

두란노 어머니학교 108기 모집

일시: 5월 8일~6월 5일(매주 수 오전 10시~

오후 3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

강사: 한은경,김선숙,박승자,박종길

회비: 12만원(우리은행 1005-381-711002)

접수: 아이스쿨 또는 전화 02-2182-9114

또는 인터넷 www.mother.or.kr

안산M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의료 접수 및 안내 봉사자 모집

(CMN 시온팀과 함께 봉사)

장소: 안산 온누리M센터

일시: 4월 28일 13:30~17:00

문의: 이춘녀 간사(010-7471-1388)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Crow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CGNTV

GLOBAL SERMON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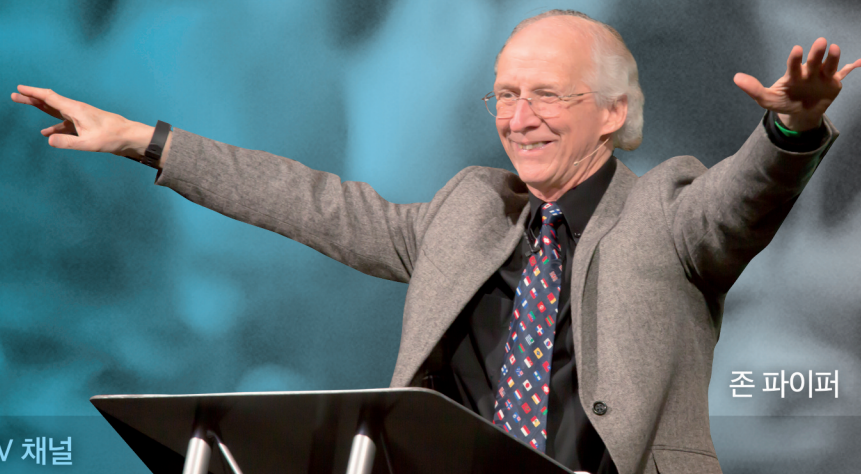
글 로 벌 말 씀 강 해



케빈 드영



데이비드 플랫



존 파이퍼

*영상보기: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 유튜브 CGNTV 채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설교가들의 메시지가
매일 밤 방송됩니다.

시간	월	화	수	목	금
밤 12시	<크로스 컨퍼런스>	카일 아이들먼	데이비드 플랫	존 파이퍼	칩 잉그램
밤 12시 50분	스티븐 엄	크레이그 그로셀	케빈 드영	젠센 프랭클린	맥스 루케이도

방송시간 **매일 밤 12시, 12시 50분**

CROSS Conference 2019 <크로스 컨퍼런스>

존 파이퍼, 케빈 드영, 데이비드 플랫 등
해외 유명 목회자들이 참여한
‘차세대를 위한 선교적 세계관 컨퍼런스’

방송시간 **매주 월요일 밤 12시**